

허버베이스볼

최강 가린다

세한기업재규어스

광주일보 무등기 사회인 야구 무등리그 결승

무등리그 우승컵을 다툰 최강자들이 결정됐다.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 4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6주차 경기가 18일 무등중학교 야구장에서 열렸다. 무등리그 준결승전으로 진행된 두 경기에서 허버베이스볼과 세한기업재규어스가 승리를 거뒀다. 결승행을 확정지은 두 팀은 무등기 우승을 놓고 마지막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됐다. 허버베이스볼은 베프스와의 준결승에서 13-5 대승을 거뒀다. 허버베이스볼이 1회 5점을 뽑아내며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이용권이 1회 투런포를 터트리면서 초반 싸움에 힘을 보탤었다. 7-4로 앞선 5회 허버베이스볼은 4점을 뽑아내는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13-5로 결승행 티켓을 획득했다. '2회 지왕리그 우승팀' 세한기업재규어스와 '3회 인왕리그 우승팀' 페가수스. 역대 챔피언들의 대결로 전개된 2경기는 세한기업재규어스의 승리로 끝났다. 1회 상대 실책으로 선취점을 뽑은 세한기업재규어스가 메이닝 득점에 성공하면서 리드를 이어갔다. 페가수스는 1-5로 뒤진 5회 2점을 뽑아내며 2점차까지 추격했지만 막판 뒤집기에 실패하면서 대회 2연패 꿈을 접었다. 한편 무등기 7주차 경기는 광일리그 준결승전으로 진행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8일 광주 동구 무등중학교 야구장에서 열린 제4회 무등기 광주·전남사회인 야구대회 준결승 세한기업 재규어스와 페가수스의 경기. 페가수스 공격 때인 1회말 무사 1루 2번타자 김영학 타석 때 루자 남정우가 도루를 시도, 세한 재규어스 김용신이 2루 베이스 태그를 시도했으나 볼이 빠져 세이프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1경기

베프스	0021101-5
허버베이스볼	500242×-13

▲승리투수:유기룡 ▲홈런:이용권(1회2점·허버베이스볼)

◇2경기

세한기업재규어스	111111-6
페가수스	100021-4

▲승리투수:홍길준

LG, 기선제압

NC에 13-4...준 PO 첫 승



MVP 최경철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가을잔치' 첫 승을 신고했다. LG 트윈스가 19일 창원마산구장에서 열린 2014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5전3선승제) 1차전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최경철의 스피링 등으로 1회에 6점을 뽑는 막강화력을 발휘, 13-4 승리를 거뒀다. 정규리그 막판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2년 연속 가을 무대를 밟은 LG의 상승세가 이어진 경기였다. LG는 1회부터 NC 선발 이재학을 강판 시키는 등 장단 16안타를 터트리며 포스트 시즌 통틀어 역대 5번째 선발 전원 득점 기록을 세웠다. 장단 후 야대 최단 기간인 2년 만에 포스트시즌 경기에 나선 NC는 이재학의 조기 강판 속에 쓴 패배를 맛봤다. 일찍 승부의 추가 기울었다. 1회 LG 투타자 정성훈이 좌중간에 떨어지는 2루타로 공격의 물꼬를 텄다. 1사2루에서 3번 박용택이 볼넷으로 걸어나간 뒤 이병규의 2타점 2루타가 터졌다. 이진영의 적시타와 김용의 내야안타가 이어지면서 이재학이 0.2이닝 4피안타 1볼넷 5실점으로 일찍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외국인 선수 웨버가 급히 마운드에 투입됐지만 최경철이 좌측 담장 넘어가는 3점포를 날리며 NC에 치명타를 날렸다. 포스트 시즌 첫 타석에 선 최경철은 기선을 제압한 홈런으로 경기 최우수(MVP) 선수로 선정됐다. NC는 2회말 1사에서 나온 나성범의 팀 첫 안타이자 첫 홈런으로 추격을 시작했지만 LG의 화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5회에는 LG 박용택의 솔로포가 나오는 등 일방적인 흐름이 전개됐다. LG는 선발 류제국이 5회 NC 모창민을 상대로 머리 쪽에 직구를 날리며 퇴장을 당하기도 했지만 공격에서 NC를 압도하며 첫 승을 가져왔다. 준플레이오프 2차전은 20일 오후 6시30분 같은 장소에서 계속된다. NC에서는 잘리가 선발로 나서고, LG는 리오단이 연승맞기에 도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이게 최선입니까”



17일 오후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4 프로야구 정규리그 최종일 KIA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에서 KIA가 9회말 상대의 폭투로 결승점을 뽑아내며 시즌 마지막 경기를 승리하며 시즌을 마무리하고 선수들이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54승 74패 8위로 7개월 대장정 마무리
김주찬·이대형·용병 영입 기대 못미치고
마운드 불안·벤치 위기 대처 능력도 낙제점
안치홍 등 주축 대거 이탈...내년이 더 문제

KIA의 2014시즌은 54승74패(승률 0.422)로 끝났다. KIA는 지난 1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최종전에서 끝내기 폭투로 5-4 승리를 거두며 7개월간의 대장정을 끝냈다. 최종전을 승리로 장식하기는 했지만 'V10'에 빛나던 야구 명가는 2년 연속 8위에 머무는 수모 속에 일찍 그라운드에서 철수했다. 올 시즌 한참 부족했던 성적, 미래도 없었다는 점에서 2014 시즌은 낙제점이다. 투자는 있었지만 결과는 없었다. FA 시장 과열을 부추겼다는 논란 속에서도 KIA는 지난 시즌 FA 대어 김주찬을 영입

하며 외야를 보강했다. 올 시즌에는 이대형을 투입하는 등 전력 강화에 나섰다. 몇 년째 풀지 못한 마무리 고민 탓에 우려에도 '외국인 마무리' 카드를 투입하는 현장의 선택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팀 못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던 타선을 보유하고도 힘을 내지 못했다. 초반 불타던 타선은 투·타 불균형 속에 힘을 잃었다. 폭발력도 세밀함도 아닌 이렇다할 공격 스타일 없는 '극과극'의 타격으로 도깨비뺨이 됐다. 김주찬·이대형 등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대도를 영입하고도 기동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마운드였다. 2012시즌 가을 불꽃을 태운 만형서재응을 필두로 윤석민-앤서니-소사-김진우의 완벽 피칭이 이어지면서 '투수 왕국'의 위엄을 세우는 것 같았지만 지난 2년간 마운드는 호랑이 군단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 됐다. 외국인 카드 선택에서도 좌완에 중점을 뒀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선택의 폭은 오히려 좁았다. 또 불펜 강화의 답을 찾지 못하면서 외부 베테랑 영입으로 겨우 면면을 유지했다. 그

러는 동안 내부 육성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내년 시즌 마운드는 여전히 물음표다. 벤치의 위기 대처 능력도 낙제점이었다. 외국인 마무리 카드와 휴식이 일정 등 '변수'에 대한 세밀한 준비와 대처가 부족하면서 시즌 내내 시행착오가 계속됐고, 결국 2년 연속 8위가 KIA의 최종성적이 됐다. 내년 시즌은 전력의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많다. 김선빈-안치홍 두 내야의 중심 선수가 군복무를 하고, 에이스 양현종도 해외 진출 가능성이 남아있다. KIA는 지난 3년 실패를 애기하고 변화를 통한 재도약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약속으로 KIA의 2014시즌 가을도 초라하게 마무리 됐다. 현실에 급급했던 3년의 실패 속에 재장단에 가까운 리빌딩과 변화가 필요하게 됐다. KIA는 선동열 감독과의 재계약으로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거센 변화의 바람 없이는 긴 암흑기에 접어들 게 볼 보듯 뻔한 위기 상황이다. 종이 호랑이로 몰락한 KIA를 깨울 바람이 무엇일지, 그 답을 찾아야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